N.E.W. SEMINARY 강의 자료

나훔과 하박국: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Hoon Kim 목사, 2026년 10월 20일, 나훔 1:1

김훈 목사는 기원전 7세기 예언서를 살펴보며, 니느웨를 향한 요나서의 끈질긴 자비와 나훔서의 의로운 보수 사이의 신학적 균형을 조명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세상 제국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질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박국의 정직한 예언자적 대화를 살펴봅니다.

가르침: Hoon Kim 목사, N.E.W. Church. AI의 도움을 받아 영어에서 번역했습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무료로 듣고, 내려받고, 나눌 수 있습니다: newexodusseminary.org/ko/2026-10-20-new-nahum-1-nahum-and-habakkuk-gods-mercy-and/

한눈에 보기 · 가르침 노트 · 성경 본문 가이드 · 단어 연구 · 지명과 연대표 · 가르침 개요 · 학습 가이드 · 기도 · 복습 문제 · 3분 요약

시각 자료

- 시각 자료 1: 환난 날의 산성
- 시각 자료 2: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 시각 자료 3: 은혜와 공의의 질문
- 시각 자료 4: 평화의 복음
- 시각 자료 101: 소선지서의 주제들
- 시각 자료 103: 앗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포로
- 시각 자료 104: 니느웨 성읍
- 시각 자료 105: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 시각 자료 109: 요나와 나훔 비교
- 시각 자료 112: 7세기 선지자들
- 시각 자료 113: 나훔과 소선지서
- 시각 자료 117: 나훔과 요한계시록
- 시각 자료 118: 소선지서의 주제들
- 시각 자료 119: 주전 7세기 선지자들
- 시각 자료 120: 페르시아 제국의 확장

- 시각 자료 121: 페르시아 제국의 발흥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기: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 **제목:**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 **일시:** 2026년 10월 20일
- **본문:** 나훔 1:1
- **설교자/강사:** 김훈 목사 (N.E.W. Church)

핵심 진리

회개하는 자에게 끈질긴 자비를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은 교만한 압제자들에게 의롭고 언약적인 보수를 행하시며, 억압받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예언자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요약

이번 강의에서 김훈 목사는 하박국서를 소개하기에 앞서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의 신학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균형을 중심으로 기원전 7세기 예언서를 살펴봅니다. 나훔서에 나타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질투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공의임을 보여줍니다. 요나서의 은혜에 대한 질문과 나훔서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비교하면서, 김훈 목사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절정에 이르듯 억압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직접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 남은 자들은 예언자적 상상력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질문을 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요 흐름

1. **기원전 7세기 예언자들의 역사적 배경:** 기원전 600년대의 지정학적 격변, 앗수르의 몰락, 그리고 성경 예언이 현대 세계의 격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합니다.
2. **하나님의 질투와 거룩한 보수 (나훔 1장):** 거룩한 공의의 기초인 언약적 질투, 억압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수가 주는 위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
3. **요나와 나훔: 자비와 공의의 균형:**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회개와 나훔을 통한 교만한 파멸을 대조하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조명합니다.

4.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남은 자의 자세:** 세상 제국의 변천, 나훔서의 시청각적 시, 그리고 압제자의 패망을 알리는 좋은 소식(*euangelion*).
5. **하박국 개론: 바벨론과 에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예언자적 탄식, 하나님께 던지는 정직한 질문, 그리고 제국이 붕괴하는 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자세.

가르침 노트

강의 노트: 카탈로그 기본: 나훔과 하박국

1. 역사적 배경

- **주전 7세기의 지정학적 변화:** 나훔, 하박국, 스바냐의 예언 사역은 세계 초강대국들이 격변하는 전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 **앗수르 제국의 궤적:**
- 주전 722년, 신앗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사마리아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 주전 701년, 산헤립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여호와를 찾았고(이사야 37장),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과 산헤립의 퇴각, 그리고 이후 니느웨에서 일어난 산헤립의 암살로 이어졌습니다.
- 이 실패한 포위 공격 이후, 앗수르 제국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바벨론, 엘람, 메대의 연합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 **바벨론의 부흥:** 앗수르가 붕괴함에 따라, 느부갓네살 치하의 신바벨론 제국은 급속도로 팽창하여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 **페르시아 제국의 팽창:** 뒤이은 주전 6세기, 고레스 대왕 휘하의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주전 550년), 리디아(주전 546년), 바벨론(주전 539년)을 차례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 제국들이 끊임없이 뒤바뀜을 보여 주었습니다.

2. 장소와 지리

- **니느웨:**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강 동쪽 강변에 위치함.
- 니느웨는 외벽, 내부 수문, 그리고 코세르강과 티그리스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해자를 갖춘 지극히 견고한 고대 대도시였습니다.
- *지리적 역설:* 방어적 보호를 위해 설계된 복잡한 수로망과 참호들은, 심각한 홍수가 도시의 수문을 무너뜨렸을 때 결국 니느웨의 함락을 초래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나훔의 물의 이미지를 성취했습니다.

- **바벨론과 주변 강대국들:** 이라크 남부 유브라데강을 따라 위치했으며, 메대(현대 이란)와 연합하여 니느웨를 무너뜨렸습니다.

3. 원어 통찰

-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
- 나훔 1:15의 개념 속에 나타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
- 김 목사는 이를 고대 로마-그리스 및 고대 근동의 관습과 연결합니다. 당시 제국의 전령들은 새로운 통치자의 등극,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 혹은 제국의 평화 정착을 알리는 공식 선포(*euangelion*)를 제국 전역에 전달했습니다.
- 마가는 마가복음 1:1에서 이 확립된 용어를 차용하여,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의 승리자이심을 선포함으로써 제국의 선전에 도전합니다.

4. 영적 진리와 적용

- **하나님의 질투의 언약적 기초 (나훔 1:2):**
- 하나님의 보응은 부부 사이의 언약적 질투(*qanna*)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를 아내나 약혼녀를 대하는 남편의 관계로 대하십니다.
- 앗수르를 향한 응징은 통제되지 않는 악의가 아닙니다. 이는 잔혹한 가해자들로부터 사랑하는 신부를 보호하시는 의로운 남편의 행동입니다.
- **요나와 나훔의 신학적 균형:**
- *요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chesed*)을 강조합니다. 니느웨는 경고를 받았고, 회개했으며, 심판은 유예되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 4:11).
- *나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를 강조합니다. 100년 후, 니느웨는 걷잡을 수 없는 교만과 폭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의에 대한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훔 3:19).
-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며, 이방 우상들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증거에 기초한 공의로 행하시며, 백성이 회개할 때는 진노를 거두시고 반역이 굳어질 때는 진노를 집행하십니다.
-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한 예언적 상상력:**
- 나훔은 역동적인 감각적 효과를 사용합니다. 시각적 색채(나훔 2:2–3의 붉은 방패, 붉은 옷, 번쩍이는 병거의 쇠)와 청각적 묘사(나훔 3:2–3의 채찍 소리,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활용합니다.
- 이 시적 이미지는 고통받는 성도들의 마음에 곧 임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생생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세상적 교만의 역전 (나훔 2:11–13):**
- 니느웨는 스스로를 정복한 민족들을 먹이로 삼는 난공불락의 사자 굴로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니느웨를 대적하신다고 선언하시며, 그 병거들을 불사르시고 그 사자들을 굶주리게 하심으로써 세상 제국들의 궁극적인 전복을 보여 주셨습니다.
- **영적 전쟁과 기도의 메커니즘 (요한계시록 6장 및 8장):**
- 다섯 번째 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의로운 심판을 부르짖습니다 (요한계시록 6:9–11).
- 요한계시록 8:3–5에서 금 제단에 드려지는 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가 땅에 쏟아질 때, 우주적 심판이 촉발됩니다.
- 성도들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역사 속에서 공의와 구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하박국에 나타난 예언적 대화:**
- 성경적 기도는 정직한 탄식과 어려운 질문을 허용합니다 (하박국 1:1–4, 13).
- 하박국은 유다 내부의 부패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악한 이방인(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계하실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 하나님께서 정직한 질문에 응답하실 때 계시가 펼쳐지며,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당혹감 속에서도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경 본문 가이드

성경 가이드: 성경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성경 구절 표

구절	사용 방식	위치	김 목사님이 도출한 핵심 내용	신뢰도
나훔 1:1	낭독 / 암시	7세기 선지자들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이자 시적인 예언으로서의 니느웨에 관한 경고와 묵시.	높음
나훔 1:2	낭독	하나님의 질투와 신적 복수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신부를 지키는 남편으로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높음

구절	사용 방식	위치	김 목사님이 도출한 핵심 내용	신뢰도
나훔 1:7	낭독	하나님의 질투와 신적 복수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아시고 보호하십니다.	높음
요한계시록 6:9-11	낭독	하나님의 질투와 신적 복수	다섯째 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땅 위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의로운 심판을 부르짖습니다.	높음
요한계시록 8:3-5	낭독	하나님의 질투와 신적 복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제단 앞에 상달되고, 땅에 쏟아지는 불로 응답되어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높음
요나 4:11	낭독	요나와 나훔: 긍휼과 공의의 균형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높음
나훔 3:19	낭독	요나와 나훔: 긍휼과 공의의 균형	나훔서는 니느웨의 치명적인 상처와 끝없는 잔인함을 향한 굽힘 없는 공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높음
나훔 1:15	낭독	세계 질서의 전환과 남은 자의 태도	압제자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유다에게 평화와 회복의 좋은 소식(*euangelion*, 복음)이 됩니다.	높음
나훔 2:2-3	낭독	세계 질서의 전환과 남은 자의 태도	니느웨의 전복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시각적 이미지(붉은 방패, 붉은 군복, 번쩍이는 병거).	높음
나훔 3:2-3	낭독	세계 질서의 전환과 남은 자의 태도	심판에 관한 선지자적 상상력을 북돋우는 청각적 묘사(채찍 소리, 바퀴 덜컹거리는 소리, 달리는 말).	높음
나훔 2:11-13	낭독	세계 질서의 전환과 남은 자의 태도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엎으시며, 수치를 당하고 황폐해진 사나운 사자의 굴로 묘사된 니느웨.	높음
하박국 1:1-4	낭독	하박국 개관	유다 내부에서 억제되지 않는 폭력, 분쟁, 마비된 공의에 대한 하박국의 첫 번째 솔직한 호소.	높음

구절	사용 방식	위치	김 목사님이 도출한 핵심 내용	신뢰도
하박국 1:13	낭독	하박국 개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벌하기 위해 무자비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질문하는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	높음
이사야 37장	암시	7세기 선지자들의 역사적 배경	히스기야 왕의 기도, 예루살렘의 구원, 산헤립의 실패와 그에 이은 암살.	높음
마태복음 5:39	암시	하나님의 질투와 신적 복수	뺨을 돌려대는 것은 궁극적인 복수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확신에 기초합니다.	높음
오바댜 1-21	암시	하박국 개관	교만 때문에 악인의 운명에 동참하게 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에돔을 향한 심판.	높음
스바냐 1:7; 3:8, 17	인용 / 의역	세계 질서의 전환과 남은 자의 태도	남은 자들에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사랑 가운데 행진하실 때 기뻐하라고 부르심.	높음
하박국 2:4, 20	암시	세계 질서의 전환과 남은 자의 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온 땅은 거룩한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높음
요한계시록 17-19장	암시	세계 질서의 전환과 남은 자의 태도	바벨론의 몰락, 하나님의 공의의 입증, 그리고 신부의 최종적인 구원.	높음

성경적 및 역사적 배경

주전 7세기는 고대 근동에서 지정학적 격변이 일어났던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잔혹하게 멸망시키고 주전 701년에는 산헤립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앗수르 제국(신앗수르 제국)은 아슈르바니팔의 통치 이후 급속한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니느웨의 힘이 쇠약해지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포위망을 좁혀왔고, 결국 주전 612년 니느웨는 파멸적인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나훔은 앗수르의 지배가 저물어가던 황혼기에 사역하며, 이 잔인한 대도시에 임할 하나님의 보응을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느부갓네살의 지휘 아래 신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여 남유다를 위협했고,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박국은 야만적인 제국을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두고 고뇌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 연결과 적용

김 목사님은 이 예언서 본문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두 기둥, 곧 끊임없는 긍휼과 의로운 공의를 통해 하나로 연결합니다. 요나서가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강조한다면, 나훔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압제에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질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남편으로서의 헌신에 기초하여 의로운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복수는 종말론적으로 예견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으며, 세상 제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응은 역사의 종말로 유예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성도들은 사적인 복수를 도모하지 않고, 기도로써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따르면,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손을 직접 움직여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확인 및 점검 사항

- **주전 7세기의 연대 산정:** 김 목사님은 "이들은 7세기 선지자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을 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대학적으로 주전 7세기는 주전 699년부터 600년(그리스도 오시기 약 600년에서 650년 전)을 포함하며,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은 주전 8세기에 해당합니다.
- **니느웨의 지리적 위치:** 김 목사님은 니느웨가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나 시리아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한 후 이라크로 정리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니느웨는 이라크 북부(티그리스강 유역의 현대 모술 인근)에 위치하며, 고대 바벨로니아가 이라크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요나서의 회개 선포 조서:** 김 목사님은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심지어 개들까지" 회개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요나 3:7-8에는 왕이 사람뿐만 아니라 소 떼와 양 떼도 금식하고 굵은 베 옷을 입도록 조서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성경 본문에 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 **나훔과 하박국 사이의 간격:** 김 목사님은 하박국과 스바냐가 예루살렘 멸망 전 "약 100년 후"에 사역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주전 612년)과 예루살렘의 멸망(주전 586년) 사이의 간격은 26년이지만, 나훔의 사역은 그보다 수십 년 전(주전 약 660-650년경)에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 **요한계시록 인용:** 김 목사님은 바벨론에 대한 신원을 논하면서 "요한계시록 8장, 17장에서 19장"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3-5은 금향로와 기도를 묘사하고 있으며, 바벨론의 몰락과 신원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에 나옵니다.

단어 연구

원어 연구: 성경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1. Euangelion (*εὐαγγέλιον*)

- **강의된 단어:** *euangelion*
- **언어:** 헬라어
- **관련 본문:** 나훔 1:15 (마가복음 1:1과 연관하여 암시됨)
- **단락 제목:** 심판의 좋은 소식 (나훔 1:15)
- **김 목사님이 설명한 의미:** 이 단어는 "좋은 소식" 또는 "복음"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과 그레코-로만 제국의 맥락에서, 이 용어는 결정적인 전투 후에 영토 전역으로 전달되던 공식적인 승전 선포를 가리켰습니다. 전령들은 승리, 이전 체제의 전복, 새로운 황제의 등극이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마가복음 1:1이 이러한 세속적이면서도 예언적인 관용구를 차용하여,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나라를 시작하셨음을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훔 1:15에서 "좋은 소식"은 잔인한 압제자인 니느웨가 꺾였으며, 유다에 해방이 찾아왔다는 선포입니다.

(참고: 김 목사님은 이번 강의에서 상세한 히브리어 어휘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며, 주로 복음 선포의 개념적 및 역사적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명과 연대표

지명과 연대표: 기초 목록: 나훔과 하박국

지명

지명	강의에서 설명된 역사적 사건	현대 위치	성경 구절
니느웨	앗수르 제국의 수도; 요나의 사역 때는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으나, 회개하지 않는 잔혹함으로 인해 나훔의 예언대로 홍수와 연합군에 의해 멸망함.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강 동편 기슭, 현대 모술 맞은편.	나훔 1:1; 2:8; 3:19; 요나 4:11

지명	강의에서 설명된 역사적 사건	현대 위치	성경 구절
티그리스강	니느웨와 접한 강; 도시를 둘러싼 해자와 방어용 수로가 도리어 니느웨의 침수와 파멸을 가져오는 수단이 됨.	터키 동부에서 발원하여 이라크를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흐름.	나훔 2:6
유브라데강	바벨론 성읍과 제국의 중심을 이루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강.	터키 동부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관통하여 흐름.	녹취록 1:24
바벨론	이라크 남부에서 급부상한 메소포타미아 강국; 메대, 엘람과 연합하여 니느웨를 무너뜨렸으며, 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남유다를 심판함.	이라크 남부, 현대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85km 지점.	하박국 1:6
메대 / 엘람	바벨론과 연합하여 앗수르 제국을 포위하고 무너뜨린 동방의 동맹국들.	오늘날의 이란.	녹취록 1:24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의 앗수르 군대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으나, 이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아 멸망함.	예루살렘, 현대 이스라엘 / 서안 지구.	이사야 37장; 열왕기하 25장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주전 722년에 앗수르 제국에 함락되고 파괴되어 북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감.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관할 지역.	열왕기하 17장

연대표

제시된 연대	역사적 사건	성경 구절
주전 약 841년경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앗수르의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침(검은 오벨리스크에 묘사됨).	시각자료 102
주전 약 760년경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예언함;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이 유예됨.	시각자료 109
주전 722년	앗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사마리아)을 정복하고 백성을 사로잡아가며 이방인을 이주시킴.	열왕기하 17장; 시각자료 103

제시된 연대	역사적 사건	성경 구절
주전 701년	산헤립의 앗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히스기야의 기도로 패퇴하고, 니느웨로 퇴각한 산헤립은 암살당함.	이사야 37장; 녹취록 1:12
주전 약 670–660년경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의 완전한 전복과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 신탁을 전함.	나훔 1:1; 시각자료 109, 112
주전 612년 [암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니느웨가 함락되고 멸망함.	녹취록 1:24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됨.	녹취록 1:33; 시각자료 119
주전 550년	고레스 대왕이 메대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확장을 시작함.	시각자료 120, 121
주전 546년	고레스 대왕이 리디아 제국을 정복함.	시각자료 120, 121
주전 539년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하여 신바벨론 제국을 종식시킴.	시각자료 120, 121
주전 525년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가 제국의 정복지를 이집트까지 넓힘.	시각자료 120, 121
주전 521년	다리오 1세가 즉위하여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영토 확장을 공고히 함.	시각자료 120, 121

가르침 개요

강의 개요: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본문: 나훔 1:1–15; 하박국 1:1–13
핵심 메시지: 회개하는 자에게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압제자들에게는 의로운 언약적 보복을 집행하시며,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선지자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첫째 단락: 지정학적 격변과 언약의 남편

- **핵심 본문:** 나훔 1:2; 이사야 37
- **강의 요점:** 주전 7세기 선지자들은 잔혹했던 앗수르 신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격변기에 사역했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부부간의 언약적 질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인 포식자에 맞서 억압받는 신부를 지키시는 신실한 남편으로 일어서십니다.
- **핵심 통찰:** 하나님의 보복은 감정적인 자제력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신원을 가져다주는 의로운 공의입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01 (소선지서의 주제들), 시각 자료 103 (앗수르 포로 지도), 시각 자료 104 (니느웨 도성), 시각 자료 105 (나훔 1:2 말씀).

둘째 단락: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 기도의 영적 원리

- **핵심 본문:** 나훔 1:7; 요한계시록 6:9–11; 요한계시록 8:3–5
- **강의 요점:** 성도는 압제를 당할 때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다섯째 인과 일곱째 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향해 향연처럼 피어오르고, 땅에 쏟아지는 불로 응답됩니다.
- **핵심 통찰:** 지역 교회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실시간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공의를 집행하고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 (환난 날의 산성), 시각 자료 2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셋째 단락: 백 년의 간격: 끝없는 긍휼과 확실한 심판

- **핵심 본문:** 요나 4:11; 나훔 3:19
- **강의 요점:** 요나(주전 약 760년경)와 나훔(주전 약 660년경)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거룩한 성품의 상호보완적인 두 측면을 보여 줍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긍휼을 베푸셨고, 백 년 뒤 니느웨가 다시 고질적인 잔혹함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굽힘 없는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 **핵심 통찰:** 하나님의 성품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관되십니다. 요나는 은혜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고, 나훔은 공의에 대한 질문으로 끝납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09 (요나와 나훔의 비교), 시각 자료 3 (은혜와 공의의 질문).

넷째 단락: 시적 예언과 패망의 복된 소식

- **핵심 본문:** 나훔 1:15; 2:2–3; 3:2–3

- **강의 요점:** 나훔은 니느웨의 몰락을 제국의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영구한 평화를 알리는 공식적인 복된 소식, 곧 *euangelion*(유앙겔리온)으로 선포합니다. 나훔은 선명한 시각적 색채(붉은 전사들, 번쩍이는 병거)와 청각적 효과(채찍 소리,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를 사용하여 선지자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께서 곧 내리실 심판의 확실성을 확증합니다.
- **핵심 통찰:** 정복할 수 없는 사자의 굴처럼 자랑하던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결 앞에 철저히 뒤엎어질 것입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12 (주전 7세기 선지자들), 시각 자료 113 (나훔과 소선지서), 시각 자료 4 (평화의 복음).

다섯째 단락: 하박국의 선지자적 대화

- **핵심 본문:** 하박국 1:1–4, 13; 하박국 2:4
- **강의 요점:** 바벨론 제국이 앗수르를 대신하여 일어날 때, 하박국은 솔직한 선지자적 기도로 유다 내부의 불의와,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해하기 힘든 섭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 **핵심 통찰:** 선지자적 기도는 인간의 고뇌를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권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무너져 가는 제국들 한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19 (주전 7세기 연대표).

결단과 적용

성도들이 개인적인 원한을 내려놓고, 의로운 공의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 동참하며, 자신을 의탁하는 모든 자의 산성이 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도록 권면하십시오.

학습 가이드

학습 교재: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핵심 진리

회개하는 자에게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압제자들에게는 의롭고 언약적인 보복을 집행하시며, 고통받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선지자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핵심 구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7 (개역한글)

배경 이해

1. **지정학적 도가니:** 주전 7세기(주전 600년대) 동안 고대 근동은 거대한 초강대국들의 교체를 겪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주전 701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앗수르 신제국은 아슈르바니팔 치세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벨론, 메대, 엘람 연합군이 니느웨를 포위하여 주전 612년에 함락시켰고, 이로써 나훔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2. **언약적 질투(*Qanna*):** 나훔 1:2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하나님의 언약적 정체성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과 신실한 남편의 관계로 맺어져 계십니다. 외세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짓밟을 때, 하나님의 보복은 자신의 신부를 지키기 위해 개입하시는 남편의 거룩하고 사랑에 찬 응답입니다.
3. **공식 선포로서의 복음(*Euangelion*):** 나훔 1:15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전하는 자의 발을 선포합니다. 고대 근동과 그레코로만 시대에 *euangelion*(유앙겔리온)은 전쟁의 승리, 압제자의 몰락, 또는 새 통치자의 즉위를 알리는 공식적인 국가 선포를 뜻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훗날 이 단어를 사용하여 악을 결정적으로 멸하신 참된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4. **선지자적 탄식과 계시:** 하박국은 참된 성경적 믿음에 솔직한 탄식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선지자는 유다 내부의 폭력과,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만은 스스로 파멸을 부를 뿐이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하박국 2:4)는 계시로 응답하십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말씀 이해:** 자신의 신부를 지키시는 신실한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나훔 1:2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려운 보복에 관한 표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2. **주제 탐구:** 요나서의 결말(요나 4:11)과 나훔서의 결말(나훔 3:19)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책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완전한 균형을 함께 보여 줍니까?
3. **성경 연결:** 요한계시록 6:9–11과 8:3–5에 따르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 속에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4. **선지자적 상상력:** 나훔은 니느웨의 몰락을 묘사하기 위해 생생한 감각적 묘사(붉은 방패, 채찍 소리, 달리는 말, 황폐해진 사자의 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적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 오늘날 겉보기에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불의를 꿰뚫어 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5. **개인 적용:**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아 보일 때 날것 그대로의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나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안고 정직하게 선지자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난처 되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휴대폰용 요약 (WhatsApp)

요나 시대에 니느웨에 끝없는 긍휼을 베푸셨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잔혹함으로 돌아갔을 때 나훔을 통해 의로운 언약적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7 · 개역한글).

기도

'카탈로그 기본: 나훔과 하박국'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나훔 1:1

영원하신 창조주시며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거하시며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변덕스러운 거짓 우상들과 같지 않으시니,
자비로우시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하늘에까지 미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은 회개하는 자들을 폭풍 속에서 건져 내시고,
의로우신 진노는 악인들을 홍수처럼 쓸어버리십니다.

주님은 언약 백성을 질투하듯 사랑하시는 남편이시며,
주님께 속한 자들을 지키시고 신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변하는 제국들의 혼란과 격동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확실한 심판 앞에 교만한 요새들은 그들 자신의 수로에 무너져 내리고,
세상 왕족들의 사자 굴은 수치를 당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선한 피난처가 되셔서,
주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한때 주님의 원수였으며,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주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불신앙의 요나의 길을 따라가며,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음을 잊어버렸고,
니느웨와 에돔의 교만에 동참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스스로 보복하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향한 주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선포하는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박국처럼 기도 가운데 정직한 질문을 드릴 줄 알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처럼 주님의 금 제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부패한 지도자들과 바벨론의 악한 체제를 향해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억압의 영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먹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잠잠히 머물도록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의 확실한 심판을 신뢰하며 보복을 주님께 맡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뺨을 돌려대겠습니다.
주님께서 행진하여 나오셔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 기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축도

선하신 주님께서 환난 날에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1]

---

[1] 나훔 1:7, 15을 바탕으로 함.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 나훔 1:1; 나훔 1:2-15; 나훔 2:11-13; 요나 4:11; 하박국 1:1-4; 하박국 2:4; 스바냐 3:8-17; 요한계시록 8:3-5.

Hoon Kim 목사의 강의와 함께 드리도록 AI의 도움을 받아 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닙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복습 문제

복습 퀴즈: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문제

1. **객관식:** 나훔 1:2에 따를 때,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의 성경적 뿌리는 무엇입니까?
2. A) 통제되지 않는 신적 분노와 변덕스러운 짜증
3. B) 신부를 지키는 남편과 같은 언약적 질투
4. C) 앗수르의 경제적 조세 정책에 대한 응징
5. D) 사전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반응

1. **단답형:** 마지막 포위 공격 당시 니느웨의 방어용 수로망과 관련하여 일어난 극적인 역사적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1. **객관식:**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때부터 나훔이 멸망의 신탁을 선포하기까지 대략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2. A) 10년
3. B) 40년
4. C) 100년
5. D) 300년

1. **단답형:** 요나서의 결말은 나훔서의 결말과 주제 면에서 어떻게 대조를 이룹니까?

1. **객관식:** 요한계시록 8:3–5에서 땅 위에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2. A) 수소와 염소의 피
3. B) 이십사 장로들의 면류관
4. C)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드려진 향
5. D) 예언적 행적이 봉인된 두루마리

1. **단답형:** 나훔 1:15와 마가복음 1:1의 개념적 배경이 되는 헬라어 단어 *euangelion*(유앙겔리온)의 고대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1. **객관식:** 나훔이 2장과 3장에서 선명한 시각적 색채(붉은색, 번쩍이는 병거)와 청각적 효과(채찍 소리,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A) 성전 음악을 위한 고대 시적 운율 요건을 맞추기 위해
3. B) 선지자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 주기 위해
4. C) 허구적 드라마로 독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5. D) 전문적인 군사 공학 명세서를 기록하기 위해

1. **단답형:** 나훔 2:11–13에서 나훔은 니느웨의 제국적 교만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강력한 동물 비유를 사용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뒤엎으셨습니까?

1. **객관식:** 전통적인 선지자들의 신탁과 비교할 때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의 교제가 지닌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2. A) 하나님께 말하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다
3. B) 솔직한 2단계 대화에 참여하여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주권적인 계시를 받았다
4. C) 오로지 상징적인 길거리 연극을 통해서만 예언을 전달했다
5. D) 유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이방 왕들에게만 글을 썼다

1. **단답형:** 김 목사님의 강의에 따를 때, 마태복음 5:39과 성경 예언의 빛 아래서 성도는 개인적인 억울함과 불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정답표

1. **B**, 신부를 지키는 남편과 같은 언약적 질투. (단락: 하나님의 질투와 거룩한 보복)
2. 니느웨를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수로와 해자가, 극심한 홍수로 성벽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도성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단락: 앗수르의 지정학적 몰락 / 역사적 배경)
3. **C**, 대략 100년. (단락: 요나와 나훔: 긍휼과 공의의 균형)
4.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끝없는 은혜와 긍휼의 질문으로 끝나는 반면(요나 4:11), 나훔서는 니느웨의 치명적인 상처와 끝없는 악행에 대한 굽힘 없는 공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나훔 3:19). (단락: 요나와 나훔의 비교)

5. **C**,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드려진 향. (단락: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능력)
6. 제국 전역에 파견된 왕의 전령들이 전하는 복된 소식, 곧 전쟁의 승리, 압제자의 몰락, 평화를 가져오는 새 왕의 즉위를 알리는 공식 선포를 가리킵니다. (단락: 시적 예언과 심판의 복음)
7. **B**, 선지자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 주기 위해. (단락: 시적 예언과 심판의 복음)
8. 니느웨는 사납고 굶주린 사자의 굴로 묘사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대적이 되어" 그들의 먹이를 끊고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 속에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그 교만을 뒤엎으셨습니다. (단락: 시적 예언과 심판의 복음)
9. **B**, 솔직한 2단계 대화에 참여하여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주권적인 계시를 받았다. (단락: 하박국 개론: 선지자적 대화)
10. 성도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으며, 다른 편 뺨을 돌려대고 기도함으로써 최종적인 보응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에 맡깁니다. (단락: 거룩한 질투와 의로운 보복)

3분 요약

3분 강의 요약

N.E.W. Church의 김훈 목사님이 나훔 1장 1절을 본문으로 가르치시는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원전 7세기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오시기 약 700년 전, 세계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거대한 국제적 격변기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혼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의 예언서를 렌즈 삼아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나훔보다 약 100년 전에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성읍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 니느웨는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끝없는 잔혹함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보내셔서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면서도 거룩하신 분임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이방 우상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근거와 언약적 사랑에 기초하여 의로운 공의로 행하십니다. 나훔은 여호와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해를 입었을 때 아내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뺨을 돌려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나훔 1장 7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훔은 질주하는 말, 덜컹거리는 바퀴, 번쩍이는 병거, 파괴적인 홍수와 같은 시각과 청각을 사로잡는 생생한 시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화관에 가면 시각 효과와 음향 효과가 이야기를 강력하고 실감 나게 느끼게 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훔은 이러한 생생한 감각적 묘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확실하다는 완전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아가 나훔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해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큰 전쟁이 끝난 후, 전령들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악한 통치자가 패배했고 새 왕이 평화를 가져왔음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에게 참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며, 모든 억압적인 체제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언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배웁니다. 혼란과 세계 열강이 부흥하던 시기에, 하박국은 자신의 솔직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 196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본문을 바꾸지 않고 인용했습니다.